담의 호흡기성 마이코프라자스마병

C.R.D 즉, 담의 호흡기성 마이코프라자스마병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병이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퍼져 있어서 양계업체에 여러가지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3년에서 5년 이상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어느정도 이상의 규모로 양계를 하는 경우에선 소위 호흡기성 증상을 동반한 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마이코프라자스마 및 글리실라리지(M.G)에 의해 생기는 이 병은 단독으로 의해가 문제가 되는 다는 M.G에 감염하고 있어도 담이 호흡기병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일이 많다고 스포트라이져나, 다른 세균, 원충, 바이러스 등의 병이 함께 병하는 경우, 소위 호흡기증상이 중증화(重症화)하여 눈에 띄어진다 다른 병과 같이 되어 복잡한 병상을 의도하여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다른 호흡기병인 경열성기관염, 경열성후두기관염, 경열성코라자, 계두 등과 구별하는 문제는 전문수의회와 상의하되 문제이나 우선 담의 호흡기성 마이코프라자스마 병은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향, 이 병에 있어서 예방성 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둔 사양관리 및 치료대책을 경험자와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다.

(1) 담의 마이코프라자스마 병의 특징

다음 세가지의 특징은 알아 두는 것이 이병의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 우선 필요할 것이다.

1. 전파가 쉽다.
2.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 않고 M.G에 의한 항체에 의해서만 감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혈원성 감염), 유형하고 있는 (혈원성 유형) 것을 알게 많다.
3. 할을 매개로 한 전달(간접전달)을 한다. 말하자면 M.G를 채비에 보유하는 담(보관체)이 균을 가지는 할(보관체)을 낳아 군을 갖는 병아리(보관체)가 생겨난 다.

(2) 임상증상 (臨床症狀)

아래에서 발생 호흡기병으로서 임상소견상 눈에 띄는 담의 해방은 다름으로(전염성 코리아자, 계두, 대장균, 포도상구균, 기관지염 등)에 의해서 복합성에 있기 때문에 담으로 마이코프라자스마 병으로서의 특징적 시견을 아예에서 본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마에 의하면 담독 감염제를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경우, 극히 일부 보여지는 그 호흡기 증상이란 약간의 캔살이 나오는 것과 이상 호흡을 동반한다.

(3) 기낭염 (氣囊炎)과 M.G감염

담의 호흡기의 하나로서 얻어지는 안되는 것이 기낭(氣囊)이다. 담은 호흡할 때 공기 가 기낭에서 기낭에 들어가 기관을 지나서 하파에 가는 경로를 밟기 때문에 M.G는 특히 이 기낭에 침입하여 기낭에 얽물의 밑을 잡아가는 일이 있다. 담을 해부하여 기낭염이 있으면 우선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또 이 기낭염의 정도는 M.G와 같이 다론체균(주로 대장균)이 혼합 감염하면 악화된다. 그러나 기낭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감염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4) M.G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인자

M.G는 탐에 불러오는 상태에서 감염하는 일이 많고 M. G에 감염한 탐이 발생한 뒤까지는 다른 병원체 외의 스트레스 인자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 기온이 빠르고 낮은 때.
(나) 습도가 빠르고 낮은 때.
(다) 기온이 빠르고 낮은 상태가 빠르고 높은 상태가 빠르고 낮은 상태를 때.
(라) 습기가 빠르고 낮은 때.
(마) 수분이나 이동을 할 때.
(바) 사료의 영양이 빠르고 낮은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으로서는 탐의 일사, 가습에서의 일사, 가습에서의 온도 이온 동안 기후가 급격히 바뀔 때에 탐의 이동에서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또한 탐을 이동시켜 주는 설비가 급격히 바뀔 때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기 어렵게 됐다는 등 사양관리상의 실패가 원인으로 되는 일이 많다.

(5) 호흡기성 마이크로프라스마병에 의한 피해

1. 사라져서 사망을 지하.
2. 보료일러나 육성체에서 제중감소.
3. 수정율 및 부화율 저하.
4. 헤약한 병아리의 증가.
5. 폐사

(6) 호흡기성 마이크로프라스마병의 대책

1. 제사의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한다.
2. 사료는 위생적으로 저장한다.
3. 이웃 양계장 및 제사간의 거리가 가급적 멀어져 있을것.
4. 제사내의 오물이나 사체 등을 바리러는 장소는 미리 정해 두고 그곳에서의 감염이 없도록 조치한다.
5. 양계장 및 제사의 일구는 소독약과 명크를 설치하여 사람의 출입에는 반드시 신반을 소독할 것.
6. 닭을 널기전에 제사 소독을 충분히 할 것.
7. 일정이 다른 닭 및 출처가 다른 닭을 둔두 사육하지 말 것.
8. 제사내에서는 특정의 사육자 외에는 가능할 출입을 제한할 것.
9. 주사나 이동시에는 반드시 영양체를 투여 하여 실시할 것.
10. 겨울철에 제사내 환기장과 황기판을 적절히 시설해 줄 것.

(7) 치료대책

사관학교와 우울의약품으로 희생한 체품이 몇 군데 동물약품회사에서 나오고 있으며 쉽게 구입할 수 있다.